

미국, 북핵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에 화답할까

26일 한미 정상회담...공동성명에 공조 체제 내실화 조치 등 유력 핵 공격 위협시 핵우산·미사일 방어체계 미국 본토 수준 제공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확장억제 실효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공동 문서에 담을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는 한미간 공조 체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유력시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대중의 기대 및 확장억제 약속의 현실 모두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한국 당국자들과 강도높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이번 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추진해 왔는데 미국도 어느 정도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국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졌다. 이는 결국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가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문서화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특히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결과문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가 현재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협의 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 4명이 '2+2'로 모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위급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자주 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회의가 장기간 중단된 적도 있었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 정상회담에서 EDSCG 정례화에 합의했지만, 2018년 1월 회의를 끝으로 4년 8개월간 회의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9월에야 재개됐다.

반면 한미 확장억제력 실효성 체계의 모델로 많이 거론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회그룹(NPG)은 상설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

나토의 '핵공유 체계'에 대한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PG는 회원국 국방장관들의

정치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실무그룹도 존재한다.

이런 모델 등을 고려해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긴밀한 협의 체제 구축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목적은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지난해 9월 EDSCG와 11월 국방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 기획 ▲공동실행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 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당정, 전세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국민이힘 박대호 정책위원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당·정 전세기기대책 협의 결과 브리핑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 정책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尹 방미 맞춰 '6·25 10대 영웅' 국내 공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주 미국 국빈방문에 맞춰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을 알리는 홍보 영상이 국내에도 공개된다고 대통령실이 23일 전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10대 영웅 영상이 미국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을 통해 송출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담은 헌정 영상"이라며 "대통령실 홍보수석실(뉴미디어비서관실)이 방미 일정에 맞춰 국내에서 상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출국 당일인 오는 24일 서울 시내 전 광판 120여 개소를 시작으로, 내달 1일부터는 전국 150여 개소로 확대 송출된다.

서울 시내에서는 용산구 해태제과빌딩, 서울신문사 등을 통해 하루 약 1만회 송출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10대 영웅은 보훈처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공동으로 선정했다.

유엔군 초대 총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을 지낸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 및 그의 아들, 서울수복작전 중 전사한 윌리엄 해밀턴 소대위와 선교사였던 그의 아버지가 꼽혔다.

또 서울의 고아 1000여명을 제주도로 후송한 '전쟁고아의 아버지' 딘 에스 공군 대령,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명예훈장을 수훈한 랠프 퍼켓 주니어 육군 대령, 재미교포지만 '부모의 나라를 구하겠다'며 자원입대한 김영욱 미국 육군 대령이 선정됐다.

아울러 다부동 전투 영웅인 백선엽 육군 대장, 전쟁 당시 공군 최초 100회 출격을 달성한 김두만 공군 대장, 미8군 정보연락장교로서 서울탈환작전을 위한 결정적인 적군의 정보를 수집해 유엔군 사령부에 넘긴 김동석 육군 대령, 서울수복작전 당시 정부청사 옥상에 인공기를 걸고 태극기를 가장 먼저 게양한 박정모 해병대 대령도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시민참여수당 어떻게' 정책토론회

박필순 광주시의원

박필순(민주·광산 3) 광주시의원은 24일 오후 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시민참여수당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정희 군산대 교수가 '참여소득의 개념과 시민참여수당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하고, 광주시 김영선 전략추진단장이 광주시민참여수당 기반안 및 추진방향을, 박필순 의원이 광주시민참여수당 조례안을 발표한다.

이어서 토론회에는 김용덕 더불어민주당인복지관장, 서정훈 광주NGO센터장, 김태호 광주탄소중립지원센터장,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연구실장, 이민철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

행위원장이 나선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 의원은 "광주시민참여수당이 시민공익활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의견 개진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민참여수당은 기후환경활동이나 마을돌봄활동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힘 윤리위, 이번주 '김재원·태영호' 징계 관심

잇단 설화, 총선 악재 작용 우려... '자진사퇴' 시각도

국민이힘이 급주 윤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하면서 최근 잇단 설화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지난주 당원 200여명이 그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 최고위원은 윤리위에 스스로 조사를 요청한 만큼 징계 절차 착수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단 절차가 개시되면 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힘 당헌·당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 지도부 등 주류는 두 최고위원의 잇따른 설화

가 1년 남짓 남은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아차피 리스크는 당이다 부담했다"며 "윤리위를 통해 바로 잡아나간다면 당이 건전하다고 생각해 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지속되는 지지율 하락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자정' 기능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인식이 깔린 언급이다.

사실상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기정사실로 하는 셈이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의 네 단계로 나뉘는데 당내에서는 어떤 수위 징계냐에 따라 민심 호응 여부가 달려 있다는 의견이 많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성 집대 관련 증거인멸 교사의혹과 가처분 공방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를 두고 내년 총선 공천 가능성 차단 효과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그렇다고 징계를 피하거나 경징계로 그친다면 지도부로서 큰 부담이다.

총선을 앞두고 중도충으로의 외연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윤리위 징계 보다는 '자진사퇴론'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공천 자체가 봉쇄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 당사자들로서도 '최악'은 면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당에 여러 의견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귀를 열도록 하겠다"고만 말했다. /연합뉴스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